

6·4 지방선거 확대경

호남 광역단체장 전략공천 어떻게 되나

무공천 파동에 힘빠진 宥... 지분요구 쉽지 않을 듯

주말께 공천위 가동해 경선 후보·를 확정

국민·당원 뜻 명분 불구 정치적 입지 흔들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결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등 당내 주류가 정치적 타격을 받음에 따라 최근 불거졌던 광주시장 등 호남 광역단체장 후보 '전략공천설'도 동력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공천위(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와 경선 틀을 확정할 방침이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결정으로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

볼까피하게 됐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른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명분은 확보했지만 새정치가 기초선거 무공천과 연동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구 새정치연합 측과 지도부 일각에서 은근히 흘렸던 광주시장 등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전략공천설'도 힘을 잃고 있다.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파동 속에서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을 강행할 경우 그 파장과 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

원들과 공심위원들도 최근 불거진 '전략공천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 민주당 출신의 최고위원은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설에 대해 "지방선거를 맡아 먹을 일이 있느냐"며 격양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남 의원 등 일부 공천위원들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광주시장 등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후보 전략공천설은 말 그대로 '설(說)'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경선 방식에 있어 어느 정도 배려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전략공천도 어느 정도 명분과 현실적 상황이 고려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파동 속에서 전략공천을 한다면 '지분공천'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떨떨한 후보들이 있는데 객관적 기준과 경쟁력 평가 없이 새정치와 광주 정신을 내세워 전략공천을 한다면 시민들이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장 등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 및 경선 틀은 기초선거 무공천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이번 주말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 공천위를 열어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와 경선 틀을 확정하고 다음 주부터 선대위 체제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단일화 했는데... 여수·곡성 등 혼란

새정치민주연합, 무공천 철회로 다시 한번 당 공천 과정 거처야

새정치민주연합이 6·4지방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곡성과 여수 등 옛 민주당 후보들간 단일화에 성공한 지역이 혼란에 빠졌다. 단일화 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후보들이 약속을 어기고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과 함께 단일화에 성공한 후보들도 다시 한 번 당의 공천 과정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방침이 유지되고 있을 때, 곡성과 여수에서는 현역 프리미엄을 입고 있는 단체장을 쉽게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 현역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단일화 과정을 거쳤다.

곡성의 경우 옛 민주당 소속이었던 유근기 전남도의원, 조형래 전 곡성군수, 조상래 곡성군의원 등 3명 중 유근기 도의원으로 단일화를 했다.

하지만 허남석 곡성군수가 최근 옛 새정

치추진위원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해졌다. 애초 단일화를 거친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 본선 대결에서 같은 당 후보들간 당내 경선으로 선거 구도가 급변한 것이다.

이에 따른 일부 후보들의 불만도 들끓고 있다. 유근기 도의원은 "지난 28년간 민주당 당적을 유지했는데, 고작 입당한 지 10여 일 밖에 안 되는 현 군수와 당내 경선을 치르는 꼴이다"고 말했다.

앞서 여수에서도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과 송대수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 중 여수시장 민주당계 단일후보로 김 전 의장이 확정돼 송 전 도의원이 시장 출마를 접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방침에 따라 서둘러 출마를 포기한 송 전 부의장만 억울하게 됐다.

또 무안, 함평, 해남, 영암과 광주 서구 등 일부 예비후보들간 단일화를 추진했던 지역의 캠페인도 더욱 복잡해 질 수밖에 없게 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애인 살기 좋은 광주 만들어 달라"

광주지역 40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지역 장애인 유권자 연대' 소속 회원들이 1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광주건설'을 위한 정책 발굴과 공약실천을 제안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지사 선거 때아닌 '동교동계 모시기' 경쟁

박빙 승부속 지지선언 잇따라... "DJ에 기대기" 비난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사에 출마한 후보들 사이에서 때아닌 '동교동계 모시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전남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 후보들이 앞다퉈 동교동계 일부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인사들의 전남지사 특정 후보 지지 발언과 관련, "개인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동교동계 원로들의 선 굿기와 함께 "정책 선거보다는 DJ에게 기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이훈평·정대철 전 민주당 의원이 목포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이낙연 의원을) 오랜 시간 지켜봤는데, 전남지사로서 충분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공개 지지하기 위해 목포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이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고, 이낙연 의원의 전남지사 출마회견장에도 참석했다.

반면 이훈평 의원은 "사전에 권도갑 전 의원에게 이 같은 뜻을 밝히자 '동교동계는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지지하러'는 말을 하더라"면서 "이낙연 의원에 대한 개인적 생각이, 동교동계를 대표하는 지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옥두 전 민주당 사무총장과 박양수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이 전남 곳곳을

돌며 주 의원을 공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창근 전 의원 등도 현장을 직접 밟로 뛰면서 지지세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들 의원들이 동교동계 인사들의 지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은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DJ의 향수가 짙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동교동계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집에서 그를 보좌했던 측근 정치인들을 일컫는 말이며, 동교동계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함께 한국 정치의 대표 계파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관위, 장성 모 주간지 불공정 보도 '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장성 모 주간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장성 모 주간지가 보도한 15개의 기사에 대해 "입후보 예정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적절한 반론없이 일방적으로 보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특정 입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주간지는 장성군 장성을 안평리 가축

분보 공동자원화시설과 관련, 김양수 장성군수와 군정을 비판하며 당사자의 반론 없이 보도했다.

김 군수 측은 이에 대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라며 지난 4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김 군수는 주간지 발행인 A씨와 인터넷뉴스 발행인 B씨, 광주지역 일간지 C기자 등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한국계 입양아 펠르랭, 佛 통상장관 됐다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펠르랭 펠르랭(41·한국명 김종숙)이 프랑스에서 장관급 요직에 종용됐다.

펠르랭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의 통상관광 국무장관(Secretaire d'Etat)에 임명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펠르랭 장관은 외국과의 통상 관련 업무와 관광, 재외 프랑스인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프랑스에서 국무장관은 장관보다는 한 단계 급이 낮으나 장관급으로 분류된다.

통상관광부문은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으로 경제부에서 외무부 산하로 이동해 펠르랭 장관은 앞으로 로랑 파비우스 외무장관과 함께 일하게 됐다. 펠르랭은 한국 출신으로 2012년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장관직에 올랐다.

그녀는 프랑스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초대 내각에서 중소기업·디지털경제장관으로 2



년가량 일한 후 이달 초 개각 때 교체됐다. 개각을 앞두고 많은 중소기업과 정보통신 기업들이 그녀의 유임을 촉구했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1월에는 뉴욕타임스가 프랑스 정보부문을 이끌어가는 인물로 펠르랭 장관을 다루는 등 외국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펠르랭 장관은 지난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6개월 만에 프랑스로 입양됐다. 16세에 대학입학자격시험에 합격하고 17세에 상경계 그랑제콜인 에섹(ESSEC)에 진학했으며, 파리정치대학(시앙스프), 국립행정학교(ENA) 등 최고 명문학교들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연합뉴스

15P - 13층

- 실평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 매매가 - 3천2백만원

29P - 사무실 적합

- 실평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 5백만원에 월 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 - 전체 올수리

- 실평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 2천만원에 월 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500만원

(주)오천경매

대표, (062)525-5000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1대1 개인지도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독/공동투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입찰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비용으로 처리

남/직원 모집	남:35세 이하, 운전 및 기타
경매 배우면서 일하실 분	여:25세 이하, 경리 및 기타
근무조건 / 급여는 상담후 결정합니다.	